

##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자라한다면?

푸나호우 고등학교 9학년

강 주은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강주은이라고 합니다. 효사랑 선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우리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 가정입니다. 친구들이 너의 아버지 뭐하시니? 라고 물어볼 때는 왠지 목사님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수영장이 있는 멋진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가족은 낡은 교회 옆 사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교회 이름이 쓰인 교회차를 타고 학교에 라이드를 오실 때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차는 모두 좋은 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뿌리가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수많은 자랑 거리가 있지만 그 중 첫째는 무엇보다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라는 것이 큰 자랑입니다.

제작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증조 외할아버지 형제분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함은 장석팔, 장석오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두 분 할아버지는 교인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북한 괴뢰군으로부터 교회 명부를 지키시다 죽창에 찔려 1949년에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의 조상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는데 내 할아버지 두 분께서 순교자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가슴에서 뭉클한 감정을 솟아올랐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빠는 늘 우리 자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고, 잘못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큰 자랑 거리는 가족 모두가 교회의 큰 일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척 작습니다. 물론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많은 하와이에서는 중간 정도 규모에 속한다고 하지만,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를 비롯해 우리 4자매는 주말에 가장 바쁩니다. 설교를 준비하시고 모든 방송일과 예배 순서도 도맡아 하시는 아버지는 주말에 거의 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과 놀러간다 자랑하지만, 나는 가족과 주말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는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교회의 어린 아이들도 돌보시고 청소, 요리, 한글학교 교장, 한글학교 수업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늘 피곤해 하십니다.

우리 자매들은 주말이면 먼저 전교인 새벽예배로 하루를 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척 힘들고 더 자고 싶지만 모두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 동생들은 아직 중학생이지만 한글을 잘 하기 때문에 한글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칩니다. 저와 언니는 물론입니다. 토요일 오전 내내 아이들을 가르치면 힘들기도 하지만 꼭 참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글학교가 끝나면 교회 대청소도 합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합니다.

주일은 더 바쁩니다. 1부 예배부터 나는 언니와 함께 방송실에서 아빠 예배 진행에 따라 파워포인트를 스크린에 띄웁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합니다. 가끔 실수도 하긴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파워포인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봅니다. 또 2부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에 맞춰 바이올린 연주도 합니다. 엄마는 내가 유치원 때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주일 하루도 다 지납니다. 저녁이 되면 놀 시간도 없습니다.

예전엔 가족과 여행도 못 가고 교회에서 봉사만 해야 하는 게 불만이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가고 싶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여행이나 친구들과 만남이야 방학도 있고 평일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날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많이 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한 언니는 이번에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하여 4년 내내 학비 모두를 대학교에서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대학 학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는데 열리에 한 번에 아이비리그에 합격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언니는 사택이 너무 좁아 방도 없어서 윗집에서 물이 줄줄 새는 구석방에서 밤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언니, 오빠들처럼 과외도 제대로 못 받고 좋은 옷들도 못 입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심방이라도 가시면 차가 없어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봐도 언니는 혼자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도 꾸준히 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과외도 했습니다.

교회 사택이 교회 부엌과 붙어 있어서 늘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언니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간 것이 큰 자랑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복음 전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남들처럼 부유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인 가정, 순교자의 믿음과 피가 흐르는 가정, 늘 예배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저는 비록 어리지만 앞으로 평생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마음 속 깊이 다짐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leen Kang (강주은)

959 12th Ave.

Honolulu HI 96816

shineet@maven.com